

2015년 8월 24일 월요일 새벽 정리 말씀 편집본 20050923

(선생님께서 연꽃잎녹색 양복을 입으시고 분홍색 야자수넥타이를 하셨습니다. 앞에는 빨간 장미와 노랑장미가 있고 뒤에는 대둔산 기암절벽이 보입니다.)

네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오늘 말씀을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했습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가는 각자가 알지, 옆의 사람이 아느냐. 각자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당연히 인생에게 해 줘야지.’ 하지만, ‘당연히 부모가 자식에게 해 줘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못 된 생각들입니다. 불효자식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효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으레 행할 수 있는 것을 해 준 것이 아니고, 전혀 불가능한 것을 해 줬기 때문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언젠가 말씀했습니다. 나를 보고.

“쓰레기통도 하나님 것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1주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약 40일 금식한 만큼 배고팠습니다. 왜? 배고픈 고통을 깨우쳐 준 것이 아니라, 감사하라고 깨우쳐 주었습니다. 감사하라고!

그때가 약 20대가 넘었을 것입니다. 아니 10대가 넘었고 20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깨우쳐 주었는가 하니, “쓰레기통에서 무쪽을 먹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했습니다. 그런 음성이 날아왔습니다. 감사를 배울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무섭게 배웠습니다. “주워 먹을 지라도, 무엇을 따먹을지라도 감사하라. 감격하라. 음식에 대해서 감사하라. 사람이 음식을 안 먹으면 죽으니까 음식에 대해서 감사하라. 쓰레기통도 하나님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감사할 때 늘 먹고 입는 것, 감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자꾸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를 받을 때 그 기쁨이 큼니다. 내가 꺾어보니까 감사를 받을 때 너무나 좋더라는 것입니다.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은 지체를 마음대로 하듯이, 자기 정신을 그만큼 개발하고 그만큼 정신력의 자유를 얻은 사람은 모든 것을 잘 할 줄 아는데,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도 어색해서 못하고, 버릇이 안 돼서 못하고, 행동적인 것은 했는데도 말로 못하고, 또 말은 하는데 행동은 못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도운 것을 감사하라. 이 지구상의 누구든지 하나님께 생명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다.”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었으면 여러분 중에 지구상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답니다. 한 명도 없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성령님께 감사하라.”

알겠습니까? 집에서 “아버지께 감사하라. 어머니께 감사하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잘될 때 잘하라. 잘될 때 놀지 말고. 농사철에 잠자지 마라.” 믿습니까? 잘 알아들었습니까?

“우리 섭리사가 잘 될 때가 왔으니까 잘하라. 뛰고 달리면서 잘 하라.”

자기의 능력이 어디까지인가 한번 뛰어보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뛰어 보았습니다.

어제 말씀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이 많다.”

나는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지구상의 뛰어난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만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함으로 애씀으로 몸부림침으로 그 단계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았습시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하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일반적인 말씀을 합니다. 극적인 말씀을 하면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금주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을 극적으로 깨우쳐줄 것입니다. 어제 그랬습니다.

“우리 민족은 다른 것으로 주름 잡을 것이 없다. 말씀이다. 하나님의 시대의 성약 말씀이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들도 다른 것으로 주름 잡으려면 힘들 것이다. 날고기는 사람은 다 있다. 다 날고 긴다. 말씀을 갖고서 넣고, 다른 것도 계속 날고기면 되겠다. 그러면 너희들을 더 크게 본다.”

모든 것을 이것 저것을 조금씩 갖추었지만, 말씀을 갖고서 있을 때는 그가 최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로 보기 때문입니다. 일단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최고로 보십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을 꼭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가 못살게 예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못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네가 하기에 달렸다. 하나님께서 너를 못살게 해놓았겠느냐? 절대 그런 것은 없다.” 그러면서 예정론을 풀어서 가르쳐주어야 됩니다.

그냥 전도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내가 5분 동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강의를 하려 하는데 들어보겠느냐? 좋으면 따라 오라.”

그렇게 강의를 즉석에서 해 주라는 것입니다. 교회로 끌고 올 것도 없습니다. 시범을 보이십시오.

그래서 말씀의 위력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왜 이제 온 사람은 전도 잘하는데, 오래된 사람은 전도 못합니까? “나는 과거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거에 했기 때문에 지금 쉽니까? 지금도 계속 전도하는데요. 지금도 계속 합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을 위력 있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선생님 증거’ 잘하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증거할 때 선생님의 이것 저것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셨다. 지구상에 아무도 없었다.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가진 사람이 현재까지 6000년 동안 없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말씀인가 들어 볼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생님도 하나님을 증거하잖아요. 계속 하나님 이야기하잖아요. 연속적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나는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하나님 얘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안 보이는 하나님을 실감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는 내 놓을 것이 말씀이다!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왜 말씀을 못 전하느냐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 일곱개론은 전해야 됩니다. 타락의 근본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한 일곱개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전하면 나머지 30개론은 다 전할 수 있습니다. 재림에 대해서도 전하고. 그것은 한 5분씩만 전하면 핵심적인 것을 다 전하지 않습니까?

말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버뜩 버뜩 핵심만 전해 주면 됩니다.
10대들은 호기심만 주면 다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호기심이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저기 있잖아. 저기 가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 있다.” 하면 애들은 가보고 싶어합니다.

무엇을 봐도 감각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다가 말았는데, 아까 그 말씀을 잊어버렸는데 이제 찾았습니다. 무엇을 봐도 하나님께 감격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이미 감사의 감각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는 마치 화인 맞은 인생들입니다. 감각이 없으니까.
감탄이 없는 사람, 감격이 없는 사람, 스릴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감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결혼했을 때도 이성의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돌치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마치 새끼도 못 낳는 소가 먹기만 잔뜩 먹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섭리사에도 전도도 못 하는 사람들이 말씀만 잔뜩 먹습니다. 그것이 돌치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시대의 말씀을 받았고, 시대로 구원받아서 감사할 일이 아니냐! 믿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할 일을 못 한 사람들은 할 일을 한 사람에게 맨날 심판 거리가 되고, 지탄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눈을 비벼가면서 성경을 읽고, 전도도 했는데 그래서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내가 안 했어 보십시오. 사명만 갖고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리에 가 보면 사람들이 간판만 가지고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닙니다. 간판만 크게 만들어 놓고 큰 소리 치면 되겠습니까? 얼마만큼 그 안에 차린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슈퍼마켓이라고 해 놓았으면 안에 슈퍼마켓만큼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그만 구멍가게 만들어 놓고 슈퍼마켓이라고 해 놓습니다. 그러나 손님이 찾는 것이 있어야지요.

선생님께 와서 찾아봐요. 이지가지 영계를 찾고, 육계를 찾고 다 찾아봐요. 내가 다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격하고, 성령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치 감각 없는 인생들이다.”
이와 같이 늘 습관적으로 감사하지 말고,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치 않는 사람들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감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매너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에티켓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병어리가 감각이 없어서 말을 못 합니다. 귀머거리가 감각이 없어서 말을 못 듣습니다. 다 고장 났습니다. 그와 같이 감사를 못하면 감사의 기계가 고장 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감격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주고, 더 줍니다.
선생님도 애들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저 밑의 제자들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너무 좋다. 고마워.” 늘 그러합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그 동안 살려줘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을 고비도 없었는데, 언제 하나님이 손잡고 구해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손잡고 잡아 당겨도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섭리사 전체 가운데 직접 하나님이, 신의 손을 손잡고 딱 잡아당겨서 산 사람이 30%라고 합니다. 그 나머지는 천사들을 시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감사를 안 하겠습니까? 누군지는 모릅니다. 본인들이 찾아내십시오. 나는 압니다. 내 자신을 언제 손잡고 잡아당기는 것을 내가 압니다. 왜냐하면

갑각이 예리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많이 해서 그것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월남전을 썼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30개론을 썼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전도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나는 남들에게 잘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어느 때는 선생님이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했더니 “지금 너희들과 동행하고 있노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가 최고 도인입니다. 최고 영급이 높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하는 것을 믿어주고, 아는 사람은 최고 급이 높습니다. 주님이 자기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을 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도 그러합니다. 함께 있다고 생각할 때 제일 좋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집에 와서 살아도 생각이 다른 데 있으면 천리에서 내게다 마음을 두는 사람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멀리 있는 것과 가까운 것은 상관이 없다. 멀리 있어도 맞으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안 맞는 것보다 낫다.” 알겠습니까?

“감격하라.” 문제는 생활의 감사, 행실 감사, 입의 감사!

입술의 열매를 열고, 감사의 열매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늘 자기에게 감사하라.” 그러나 말을 안 들을 때는 안 됩니다. 어제도 누구를 보니까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돌아다니면서 연애나 하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딱 “너,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무슨 죄를 지었어도 다 용서해줄 테니 여기 섭리사에서 열심히 하라.” 하니까 “싫습니다. 나는 나가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느냐? 그러면 할 수 없다.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딱 손을 들면 너는 하나님께서 심판에 들어간다. 놔두지를 않는다. 알지? 병과 죽음과 고통의 지옥으로 간다. 너는 사랑이고 무엇이고 다 버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그 명단 갖다가 찢었습니다. 기록을 찢었습니다. 그래서 생명록에서 없애 버렸습니다. 어쩔 것입니까? 말 듣고 해야 됩니다.

“죄는 지었어도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앞으로 섭리사에서 살아라. 하나님 섬기면서. 그것 밖에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옥에는 안 보내니까.”

그렇지요? 기도하겠습니다.

<기 도>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의와 사랑과 공의와 진리에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어디까지나 하늘을 사랑하며 존귀히 여기며 귀히 여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이들이 모두 오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이들을 잘 키우겠습니다. 세계 섭리는 동에서 서까지, 해가 뜨는 곳에서 지는 곳까지 우리 땅이니 지구촌을 깃뚫고 당세에 영광을 나타내며 천년 역사에 기반을 딱 놓고 가겠사오니 능력과 권능과 지혜와 충명을 주시고, 오늘도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사고 없는 섭리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총을 주시옵소서. 삼위의 능력과 권능이 이들에게 함께하고 영원할지어다. 아멘.

빠이빠이! 안녕!

